

도덕적 사고란?

1. 도덕 이론은 왜 필요한가?

" 도덕적 사고 " = 윤리적 사고 (도덕적 상식에 기초함)

" 도덕철학 " = 윤리 (도덕이론 → 도덕성 규명)

포괄성, 보편성 지향 / 옳고 그름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설명 (불확실한 상황에서 ' 안내자 ' 역할)

* 도덕 이론의 필요성

1) 도덕적 문제 : 개인적이면서 (스스로 책임지 문제이면서) 개인적이지 않음 (옳은 답을 얻고자 노력할 문제)

→ 올바른 도덕적 견해를 지켜야 할 필요성 (자신의 견해/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도덕적 상식에만 의존하면 혼란함. 도덕철학은 의견대립을 해소해줌

2) 도덕성 = 옳고 그름에 관한 ' 신념 ' → 옳고 그름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도덕성을 말할 수 없음

2. 논증

전제 - 결론 : 반박 시, 전제가 참인지 or 전제에 맞는 결론인지

1) 연역적 추론 : 전제가 참/거짓 → 결론도 참/거짓 (e.g. 규칙을 지키는 일은 옳은 것 → 규칙을 지켜야 함)

2) 귀납적 추론 : 지난 경험에 비추어 앞으로 일어날 현상을 추론 (e.g. 머그잔 손잡이가 왼쪽을 향해 있음 → 병인은 왼손잡이)

3) 유추 : 비슷한 대상/상황에 대하여 유사한 특징을 가질 거라 추론

e.g. 어떤 과학적 법칙 (도덕적 가치)과 비슷할 때, 과학적 가설을 세우는 (도덕적 질문을 제시하는) 데에 유용함

3. 도덕성은 모두 상대적인가?

상대주의 ism : 도덕 = 도덕성 (도덕 : 특정 문화에서 보편화된 도덕적 신념이나 관행 → 그들 자신에게 옳은 것일 뿐, 다른 쪽의 견해를 비난할 일은 아님)

도덕이론 : 도덕성이 무엇이고, 도덕성은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지를 설명함 (도덕성 : 옳고 그름의 정당성의 근거를 들어 묻는 것 / 도덕이론 : 도덕성에 대한 설명)

4. 좋은 도덕이론이란?

1) 실제 상황에서 분명한 도덕적 답 제시

2) 포괄적, 보편적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

3) 논리적 일관성 (연역적 추론 - 기본 원칙에서 출발하여 그 원칙들을 특정 상황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면서 답 제시)

2021.09.08.Wed. & 2021.09.10.Fri

공리주의

결과론적 : (행위의) 결과가 행위 판단의 기준 (결과가 쾌/불쾌 → 선/악)

윤리적 쾌락주의 : 고통은 피하고 쾌락은 추구하는 인간의 자연적 현상에 근거 (도덕적 행위는 행복 ↑, 악한 행위는 행복 ↓)

정언적 명령 (Categorical Imperative) : 행위 자체의 선과 악을 말하는 것

Good

행위에 도덕적 제한을 설정하지 않으며, 선을 최대화하려고 함

평등과 공정함에 뿌리를 두고, 우리의 도덕적 사고/행위/사회제도에 배어 있던 관습을 털어내도록 요구

Bad

쾌락을 당연히 원해야 하고 쾌락이 바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쾌락은 과연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거나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면, 무슨 권리로 개인들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개개인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은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 행위 공리주의 >

1. 흄 (D. Hume)

- 공공윤리 : 행복주의를 개인적 차원에서 공중적 차원으로 연결
- 공감 : 모든 인간이 공유한 것으로, 유일하게 도덕의 기초가 됨 (도덕은 ' **이웃의 선을 향한 보편성** ' 에 근거함)
 - 타인의 행복해를 느끼는 능력 → 인류애, 동료의식
 - 순수 나의 이익뿐 아니라, 순수 남의 이익에도 호감을 갖게 되는 이유
- 비판점 1) 때와 장소, 개인 간의 차이에 따라 공감의 정도 차이 발생
- 2) 도덕 판단의 기초가 정말 ' 공감 능력 ' 때문일까?
경험과 성찰의 누적으로 일관된 도덕판단에 이를 수 있음 (경험, 성찰 → 보편적, 객관적 입장 정립 → 도덕판단을 위한 보편적 규칙 정립)

2. 벤담 (J. Bentham)

- 쾌락주의 : 개인적 차원에서 **공중적 차원으로 확대**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됨)
- 행위의 동기 : only 자기 이익 때문 (타인에게는 손해일지 몰라도...) → 윤리학 = 인간의 행위가 이익을 보는 자에게 최대 행복이 주어지도록 이끄는 일종의 기술
- 제 1 원리 : ' 고통의 회피와 쾌락으로서의 행복 ' 은 인간 행위의 보편적으로 정당하고 유일한 목적 (But no 증명...)
" **양적 공리주의** "
- 쾌락은 질적으로 모두 동일함 → 계량화, 측정 가능 (척도 : 쾌락의 질 X 양 O)
- 쾌락의 범위 = 쾌락을 공유하는 사람의 수 (**최대 다수 최대 행복**)
→ 자기 이익보다 사회전체의 이익이 중할 때, 다수의 행복을 추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 비판점 1) 최대다수 최대행복의 원칙이 증명 없이 명백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 2) 모든 가치를 비용-손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3. 존 스튜어트 밀 (J. S. Mill)

- 행위의 제 1 원리 : **목적** (목적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결정함)
 - " 당면 목적 " 은 " 궁극적인 목적 " 에 의해서 좋고 나쁨을 알 수 있고, 궁극적인 목적은 증명할 필요 없이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함
↳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사람들이 그것을 원한다는 사실 (우리의 현존하는 **실제의 경험적인 욕망**이 도덕적 판단의 유일한 근거)
- 벤담의 비판적 극복 " **질적 공리주의** "
- 벤담 : 쾌락의 양적 차이 O 질적 차이 X → 인간이 돼지보다 높은 쾌락을 가질 수 없다...
밀 : 쾌락의 양적, 질적 차이 O → 쾌락은 단순히 양적 기준에 의해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님
" 만족하는 돼지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소크라테스가 낫다. "
- 인간은 동물 이상의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재능들을 만족시키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음 (질적으로 다른 쾌락)
- 전제
 - 인간은 실제의 욕망과 기호에서 벗어날 수 없음
 - " 어떤 쾌락이 고급이고 저급인지 " 시험하는 방법은 **동물 모두 경험한 사람이 무엇을 선호하는지 보는 것**뿐
두 쾌락 중에서, 동물 모두 경험한 사람 (거의) 모두가 도덕적 의무감과 상관없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선호한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 쾌락이다.
 - 개인은 전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함 (도덕성의 본질 = 우리가 타인의 복지에 공감하고 따라야 하는 이유)
공리에 기초한 정의 (정의 = 도덕적 요구 → 정의를 행하고 권리를 존중하면, 사회적 공리의 수준이 높아지고 구속력이 강해짐)
- 비판점 1) 쾌락 측정에 질적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쾌락 이외의 성질을 도입하면, 쾌락은 더 이상 가치 표준으로서의 역할을 멈추게 됨
→ 쾌락주의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
- 2) " 궁극적인 목적은 증명할 필요가 없고, 사람이면 마땅히 원하는 것이라는 게 유일한 증거라는 주장 " 이 그의 의견을 마땅히 정당화하는가?
- 3-1) 질적으로 더 나은 종류의 쾌락 - 평가적 판단(기준) 필요
- 3-2) 질적 쾌락을 구분하는 평가적 판단(기준 설정)이 어떻게 실질적인 단 하나의 경험적 판단이 될 수 있는지, 어느 경우는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지 의문

4. 오늘날 공리주의 : " 행복 = 쾌락 " 보다는 " **행복 = 선호에 대한 만족** "

바라는 것을 얻으면 반드시 행복해지는지, 바라는 것을 허용하는 것만이 도덕적으로 중요한지 여전히 의문

* 행복의 본질에 관한 질문

- 행복은 측정 가능한가? Yes. 자연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전제 (자연주의 관점)
- 행복의 문제는 경험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가? 경험적 조사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 (esp. 상대적인 개념)을 판단하려면, 먼저 하나의 평가적 시각 필요
- 행복을 계량화할 수 있다면 도덕적으로 왜 중요한가?

* Pros against 행위 공리주의

- 부도덕한 결과를 집어냄 (1)
-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해나가는 데 필요한 사회의 관행이나 인간관계를 수행하지 못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감 (2, 4, 5)
- 정책결정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정작 그 결정에 따라 행복을 증진할 시간을 남겨주지 않아 본래 목적에 도달할 수 없음 (3)

비판점 1. 처벌

응보주의 (retributivism / 죄인은 인권을 상실한 자)에 반대

개개인의 행복은 다 똑같이 중요함

처벌은 오직 행복을 가져오는 결과, 최대다수의 이익이 있어야만 옳은 것 (처벌 자체로는 옳고 그름X)

처벌을 통해 다른 죄를 억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을 때 정당함 → 더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기존의 처벌은 정당화하기 어려움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할 구실로 둔갑할 수 있음 (비도덕적인 결과)

e.g. 피해자 1명보다 가해자 10명의 미래가 더 중요...? → 형법체계에 대한 신뢰 무너짐

비판점 2. 약속

약속은 의무인가?

각 대안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계산하여 쉽게 약속을 저버릴 수 있음 → 신뢰 상실 → 행복은 과연 극대화될까...?

비판점 3. 사고의 경직성

현실에서 모든 대안에 대한 비용-손익 계산의 복잡성 → 그로 인한 비용, 시간 소비

비판점 4. No 인간적인 관계 형성

개인적인 관계를 맹렬히 공격함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엄격, 자기희생적, 금욕적 (esp. 친족관계), 감동, 친밀함 같은 것들을 도덕이란 이름으로 부정함

비판점 5. 공리주의 사회가 과연 행복할까

자신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의 행복보다 중시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세상 vs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 개인을 희생해야 하는 세상 → 전자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

→ 인간의 능력과 합리성을, 비현실적으로 과대평가하는 데서 비롯됨

→ 인간의 모든 행위를 옳거나 그르다고 판정하는 행위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

< 규칙 공리주의 >

원리 : 인간의 행위가 '규칙을 지키듯이' 일정한 형태에 따라 이루어짐

전제 : 사람들은 행위의 대안이 아닌, 각기 다른 규칙에 따라 행동함 → 사람들이 따르는 규칙의 효용 비교

비판점 : 도덕적 규칙의 타당성을 부차적, 임의적으로 취급함 (규칙을 따르는지 여부에 따라 옳고 그름 판정, 규칙 자체의 타당성은 부차적)

- 도덕적 타당성 :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이유 X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의 관행이 행복을 야기하는지 O (→ 옳고 그름 : 이 규칙이 들어맞는지 여부)
- 행복하게 살아가는 노예제도 사회가 도덕적으로 무엇이 잘못인지 말할 수 없음

장점 : 옳고 그름에 대한 일정한 인식 제공

행위 공리주의 : 결과에 따라 행위 (e.g. 고문)의 선악이 결정됨

→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려던 노력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면,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설명을 수정

규칙 공리주의 : (e.g. 고문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 옳은 행위

→ 더 행복할 수 있다는 대안으로 제시된 규칙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eventually, 최선의 결과를 추구하는 공리주의는 시행착오를 거쳐 무엇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지를 검증할 수밖에 없는 경험적 문제

* 공리주의 정리

1. 인류의 복지를 중시하는데, 이는 자연주의의 "인류의 진보를 추구하는 경향"과 조화
2. 도덕적 상식과 동떨어진 노예화, 고문, 거짓말과 같은 행위도 상황에 따라 정당화 (비용과 손익 계산)
3. 선악의 판단 기준은 결과로부터 / 전체적인 선의 총합 증진을 위해 개인의 희생 정당화